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제128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7년 11월 30일

4세조 靑城伯 齋閣 竣工記念式 盛了

2017년 11월 3일(금)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번지에서 청송심씨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인 청성재(靑城齋) 준공기념식 행사가 성황리(盛況裡)에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 재각신축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회장 인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품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고문단(심대평, 심정구, 심재영, 심상욱)과 회장단, 그리고 안효공파 종회장 등 전국 지파종회장을 비롯한 750여명의 많은 종친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로써 2014년 11월에 재각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재각건립의 첫걸음을 시작한 이래, 많은 종인(宗人)들께서 십시일반(十匙一飯) 정성과 사랑으로 재각 건립기금 마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힘입어 우리 청송심문(靑松沈門)의 염원(念願)이며 오랜 숙원사업(宿願事業)이었던 4세조 청성백 선조님의 재각창건(齋閣創建)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이뤄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조님의 재각은 앞으로 숭고(崇高)한 우리 심문(沈門)의 자긍심(自矜心)과 위상(位相)을 더한층 높이고, 나아가 선조님의 유훈(遺訓)과 음덕(蔭德)을 후세에 길이 빛나게 할 요람(搖籃)이 될 것이다.

■ 금년도에 완공한 공사내역

1) 재각 본체(단청), 2) 삼문(단청), 3) 담장,

4) 홍살문 건립 5) 관리사(18평 한옥), 6) 비각(단청), 7) 현성기념비 및 현성표지판, 8) 기념식수(안효공파종회, 공숙공종중, 이경공종중, 부사공종회, 순천종회) 등

- 총 공사비 약 12억 원

■ 내년도 시행 공사내역

1) 재각 진입로 개설, 2) 묘소 중앙계단(철거), 3) 삼문~주차장 계단 설치, 4) 연못 조성, 5) 잔디 식재 등 조정, 6) 재각 관리사 칠(오일스테인) 등

- 총 공사비 : 약 2억원



완공된 재각 전경



준공 테이프 커팅식



재각건립 현성기념비

2017년도 제5차 회장단회의 개최결과 보고

- 日 時 : 2017年 11月23日(목) 11시00분
- 場 所 : 동보성 중식당(서울 중구 퇴계로 18길5)
- 參席者
의장대행 : 심재면
부회장 심의철, 심상록, 심상식, 심상화, 심상국, 심현근, 심찬구, 심일용, 심민섭, 심정보

감 사 심상렬, 심상현, 심현보
사회(진행) 총무이사 심언태, 배 석 관리부장

다음과 같이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청성백재각 준공기념식 성료, 재각 진입로 개설공사 등 향후 계획안, 청주 잠두봉공원 조성애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회장단회의 개최장면

부의안건	의 결 내 용
회계 부정사건 후속 조치에 관한 건	(1) 대중회 회계 부정지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전 재무이사 및 유가족과 전 상임 부회장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2) 위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청송심씨대중회 회장(대표)에게 위임한다.

위 의결에 따라 2017. 11. 28. 손해배상청구소장과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하였다.

청성백 재각건립 헌성금 내역

◇ 종회

헌성금액	종회명	헌성금액	종회명	헌성금액	종회명
300,000,000	안효공파종회(회장:명옥)	3,000,000	신천공종회(회장:윤섭)	1,000,000	관관공종회(회장:상렬)
50,000,000	공숙공종중(회장:웅섭)	2,000,000	관사공종회(회장:상우)	500,000	이천종회(회장:재봉)
30,000,000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장령공파종회(회장:양평)		충주종친회(회장:성래)
15,000,000	부사공종회(회장:영섭)		지성주사공파종회(회장:기찬)		감찰공충주종회(회장:성래)
10,000,000	함흥공종회(회장:장식)	익산종회(회장:상영)	신천공충천팔원공파종회(회장:화섭)		
	이경공파종중(회장:주택)	도정공파곡성종회(회장:상운)	무숙공공파종회(회장:길섭)		
	곡산공파종중(회장:상영)	춘천종회(회장:희섭)	전북청송회(회장:재기)		
	창순공파종중(회장:주택)	전북종회(회장:재정)	고성군청송심씨종친회(회장:재화)		
	찰방공종회(회장:규일)	풍덕공파종회(회장:재영)	법국종회(회장:재인)		
	정이공파어비리종친회(회장:석문)	무숙공파종회(회장:길섭)	봉익대부공철원종회(회장:상국)		
	정랑공파종회(회장:재운)	대전화수회(회장:성보)	여수종친회(회장:재수)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원주종회(회장:정보)	300,000	증평종회(회장:상학)	
	울산내금위종회(회장:영구)	사어공종회(회장:인섭)		용인종회(회장:진섭)	
악은공종회(회장:상화)	수사공종회(회장:재복)	정고부화수회(회장:재오)			
5,000,000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회장:우정)	청주종회청송회(회장:규영)		구미종회(회장:재훈)	
	강서공파지평공종회(회장:행진)	진천월촌종회(회장:상영)	부평공종회(회장:진태)		
3,000,000	수은관관공파마산종회(회장:규일)	진사공종회(회장:중근)	200,000	목곡관사공종중(회장:재화)	
	신천공파춘천대선종회(회장:상소)	곡산공제신공종회(회장:재갑)		진천월촌종회(회장:상영)	
	대전세종충남종회(회장:현근)	시정공파종회(회장:익섭)		안효공파여수신기동종중회(회장:재표)	
	사북시정공종회(회장:재봉)	광주정랑공종회(회장:은구)	100,000	영등포종회(회장:경용)	
	신천공파지경종회(회장:상달)	장성돈목회(회장:정섭)		두밀리종회(회장:재열)	

◇ 개인

헌성금액	성명	헌성금액	성명	헌성금액	성명	헌성금액	성명	헌성금액	성명	헌성금액	성명
10,000,000	갑보 회장	300,000	은구(광주)	100,000	천보(당진)	100,000	정호(무주)	50,000	이섭(여주)	30,000	계택(광명)
	재영 고문		상운(곡성)		찬보(경기)		홍섭(남양주)		진택(인천)		성근(충남)
	광섭 이사(서울 은평)		효섭(수원)		흥구(용인)		희보(시흥)		광섭(충북)		기찬(분당)
	재덕(안동종회장)		정보(대전)		정섭(장성)		재무(인천)		원중(대전)		동택(광명)
3,000,000	상렬 감사	정섭(청주)	태식(순천)		성규(경북)		호근(서울))		영섭(과주)		
2,000,000	규선(울산)	중래(청주)	영섭(서울)		홍섭(청송)		기송(경북)		재경(부산)		
1,500,000	언촌(수원)	재룡(청주)	상하(당진)		민택(춘천)		상덕(경북)		완섭(청송)		
1,000,000	의라 명예회장	200,000	재량(서울)		영보(양주)		재호(안동)		상봉(경기)		백규(서울)
	재홍 고문		주섭(경기)		유섭(서울)		기연(김제)		원섭(경기)		상국(경기)
	상식 부회장		상협(서울)		학춘(순천)		재운(광주)		종익(서울)		종래(경기)
	의철 부회장		동섭(진주)	태섭(경기)	상철(대구)	종태(부산)	두용(서울)				
	상국 부회장		현대(전남)	재덕(서울)	정구(곡성)	현진(서울)	정식(서울)				
	정보 부회장		강채(전남)	유섭(서울)	동섭(춘천)	상복(경기)	기봉(서울)				
	언태 총무이사		영일(서울)	상만(전북)	상호(청주)	근택(경기)	재관(서울)				
	갑택 문화이사		일섭(서울)	윤도(서울)	세택(청주)	평택(인천)	무명				
	상돈(화성)		극택(서울)	승권(강원)	명언(청주)	경용(서울)	경섭				
	재문(안양)		훈택(대구)	연식(경기)	광보(청주)	상압(경북)	상경				
	기백(전남)	용준(이천)	경보(충북)	재혁(청주)	승보(서울)	문환					
	상현(전북)	우식(경기)	윤식(충남)	정섭(청주)	택(함안)	성보(대전)					
	재웅(서울)	규원(용인)	건섭(대전)	진섭(경기)	재열(전주)	상협(부산)					
	회섭(거창)	남섭(김포)	영섭(경기)	상환(대구)	종보(청송)	영구(서울)					
	철유(안성)	창호(무주)	학길(서울)	영섭(여주)	준보(부산)	우정(대구)					
	기섭(서울))	달보(부산)	영희(경기)	광보(전북)	재웅(대전)	태섭(경기)					
	천석(구미)	응식(수원)	정자(경북)	상구(원주)	재도(서울)	상복(서울)					
	주석(구미)	재영(당진)	서섭(경기)	성보(대전)	상원(목포)	상연					
	무남(구미)	재운(진안)	영보(용인)	상소(춘천)	승규(강원)	규주(인천)					
	규정(구미)	상욱(서울)	재일(연천)	평택(인천)	우권(충남)	상학(원주)					
규원(구미)	우섭(전남)	상한(서울)	재무(인천)	양섭(춘천)	석란						
재룡(구미)	윤근(서울)	재오(전북)	은식(서울)	원섭(청주)	대전						
규진(구미)	재운(대전)	우익(부산)	형섭(전북)	양섭(청주)	재운(서울)						
규현(구미)	재화(진주)	응호(대구)	갑식(과주)	상수(서울)	무택(부산)						
영섭(청송)	영섭(오산)	재문(재문)	상봉(화성)	재구(삼척)	10,000	도진(충주)					
언녕(과주)	정섭(장성)	정건(경남)	원섭(창원)	상만(충북)	승길(경남)						
윤보(인천)	경보(울산)	완섭(화성)	대섭(서울)	장규(괴산)	김포						
우경(서울)	홍섭(양주)	홍보(인천)	재익(광주)	필보(경기)	김포						
재웅(괴산)	응문(인천)	태식(수원)	재룡(수원)	영(경기)	재순(홍천)						
천섭(여수)	재안(인천)	왕섭(구례)	원보(인천)	창보(서울)	구섭(인천)						
700,000	학강(서울)	종방(천안)	준섭(춘천)	상만(서울)	상렬(수원)						
500,000	상은 고문	웅택(인천)	재희(공주)	홍섭(안양)	문환(부산)						
	상철(서울)	명섭(순천)	란수(서울)	무식(강원)	상래(충주)						
	명섭(광주)	창용(인천)	봉남(전북)	상영(전북)	원택(청송)						
300,000	재복(청주)	재명(대전)	상훈(김포)	광섭(충북)	재홍(구미)						
	응진(수원)	수영(경기)	인보(고양)	규일(대전)	도섭(경기)						
	재봉(이천)	영섭(청송)	문석(고양)	정학(대전)	상기(경기)						
	의철(대전)	재구(강원)	청택(강원)	하식(강원)	상영(부산)						
	재급(서울)	순보(경남)	영섭(마산)	상집(강원)	재수(수원)						

<청성백 심덕부 관련 자료 소개>

심재석(대중회 이사)

대지국사(大智國師,1328 ~ 1390)의 ‘俗門徒 심덕부’

조선 개국 직후 세워진 <충주 역정사 대지국사탑비>에 심덕부가 ‘속문도(俗門徒)’로 기재되다

1) 대지국사비¹⁾ 건립 : 청성백 심덕부가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던 접은 ‘忠州億政寺址大智國師塔碑’에 俗門徒로서 기명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²⁾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이미 입적한 고승 대지국사의 諡號를 내리고, 그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울 때, 侍中 沈德符는 속문도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 대지국사는 구누인가 : 대지국사(大智國師)는 속명이 한찬영(韓燦英)으로 보우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승과에 장원을 하였고, 공민왕으로부터 정지원명무애국일대선사(淨智圓明無碍國一大禪師)라는 호와 함께 금단가사 등을 하사받았다. 이후 우왕이 무애현오국일도대선사(無礙玄悟國一都大禪師)라는 칭호를 주었다. 1383년 왕사가 되고 원응존자(圓應尊者)의 칭호를 받았다. 이후 충주 역정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7년 후인 1390년 6월 28일 세수 63세, 법랍 49세로 입적하였다.

³⁾대지대사는 태고화상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만법귀일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의 화두를 참구하면서 태고화상의 自心 사상을 전파하는 데 노력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박의중이 글을 지은 '충주 역정사 대지국사비'>

3) 대지국사의 속문도(俗門徒) 沈德符 : 1393년 10월 이성계가 시호 大智와 탑호 지감원명(智鑑圓明)을 내리고, 역정사 동쪽에 ‘충주 역정사지 대지국사탑비’가 건립되었다. 비문은 대사성 박의중(朴宜中, 1337~1403)이 찬술하였다. 이때 비석의 뒷면에 새겨진 속문도 중 대표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俗門徒 判門下 洪永通 / 門下侍中 李穡 / 侍中 沈德符

判開城 禹仁烈 / 政堂文學 朴彬

비문에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세속의 문도들 그리고 목사, 대호군, 판관, 응주 등 지방 관리에서 왕족에 이르는 다방면의 동참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⁴⁾이는 탑비 건립에 다양한 인사들이 동참했음을 보여준다. 심덕부는 태조 이성계가 후원한 고승 대지국사의 속문도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아, 불교에 깊은 관심과 그 승려를 통한 불교세력의 통합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4) 심덕부의 불교적 인생관 : 심덕부는 ‘三尊佛’을 개인적으로 조성하여 가문의 안녕을 기원한 바 있으며, 당대의 심덕부는,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풍도는 온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찬술자의 과장된 서술이 아니라, 진정 청성백의 성품을 잘 표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성백의 또다른 호가 갈대로 엮은 집이란 뜻의 蘆堂이니, 그 겸손한 성품이 잘 나타난다.

장군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성리학자로서 교육에 힘썼으며 불심 깊은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심덕부 선조님을 다시 한 번 존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탑비 건립에 다양한 인사들이 동참했음을 보여준다.

- 1)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비석2길 35-21(괴동리) 소재, 비신 높이 267cm, 너비 130cm, 두께 24cm
- 2) · 『한국금석총목』(장충식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4)
- 『한국금석문대계』2(조동원, 원광대학교출판국, 1981)
- 『朝鮮金石總覽』下(京城: 朝鮮總督府, 1919)

3) 입적하기 전에 읊은 7언 절구 형식의 게송이 전해지고 있다. 게송(揭頌)은 불교적 교리를 담은 한시(漢詩)의 한 형식을 말한다.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며 / 그 소리와 색을 그대에게 가히 드러내 보여줄 수가 없구나 / 그 가운데서 만약 세상이 온통 무사(無事)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 체와 용이 나누어지든 나누어지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조선 1>

4) 기타 奉翊 朴德公, 右司尹 閔由誼, 判事 孫敬時, 左諫議 李滉, 左尹 韓介臣, 軍器監 郭拯, 摠郎 李芳茂, 摠郎 李陽實, 外正 朴尙文, 外正 李漬, 前通州 鄭之道, 祇候 崔湜, 都事 趙啓生, 禮賓卿 金璫, 校勘 鄭之稚, 及第 李擔, 及第 崔沆, 進士 韓臯, 忠州牧使 李希桂, 判官 安智寶 등이 보인다.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살의유머

多不有時

시골 한적한 길을 지나던 등산객이 길옆에 있던 쪽문에 한문으로 ‘多不有時(다불유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많고, 아니고, 있고, 시간?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뜻인가? 누가 이렇게 심오한 뜻을 문에 적어 놨을까? 분명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매하신 분일 거야! 그분을 만나봐야지!’ 하고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한참을 기다리니 옆집에서 런닝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할아버님, 여기가 대체 무슨 문입니까?’ ‘여기? 화장실이야’ ‘네? 화장실이요?’ 그럼 이(多不有時) 글의 뜻은 뭐니까?’ ‘아, 이거? W.C(다불유시)야! W.C(다불유시)! 젊은이가 그것도 몰라?’

글 제공: 대중회 관리부장



스튜어디스의 재치

한 백인여성이 누가 봐도 불쾌한 표정으로 스튜어디스를 불렀다. “옆 자리에 흑인이 앉아있어 도저히 앉을 수가 없네요. 자리를 바꿔주세요.” 스튜어디스는 일단 그 말을 듣고 여성을 진정시킨 뒤 “지금 이코노미석은 꽉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주위에 있는 승객들은 황당한 행동과 말에 어이없어했다. “손님, 기장에게 전후사정을 전달 하였지만 이코노미석에는 자리가 없고, 1등석에만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더 거칠게 따지면 서 말하자, 스튜어디스는 “저희 항공사에서는 이코노미승객을 1등석으로 바꾸는 전례는 없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승객 때문에 불편한 여행을 하시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

꾸어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 여자는 희색이 만연해서 짐을 싸려고 일어섰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실례지만 다시 짐 싸는 불편이 없도록 옆에 손님을 1등석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자리에 앉은 흑인남자는 얼떨결에 1등석에 앉게 되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재치 있는 스튜어디스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다.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있었던 실제 일어난 일화였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공익광고에도 이 내용이 나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췌-

2017年 丁酉年 秋享祭 奉行

大宗會 主管 享祀

文林郎公(諱 洪孚) 秋享奉行

2017년 10월 28일(음력 9월 9일)



	始祖	配位
▶ 初獻	민섭(敏燮)	
▶ 亞獻	대평(大平)	상직(相直)
▶ 終獻	구형(求亨)	원택(源澤)
▶ 大祝	안택(琬澤)	
▶ 執禮	상철(相哲)	

中臺山墓所 秋享奉行

2017년 10월 28일(음력 9월 9일)



	中臺山墓所
▶ 初獻	만오(萬五)
▶ 亞獻	
▶ 終獻	
▶ 大祝	
▶ 執禮	원섭(元燮)

二世祖 閻門祇侯公(諱 淵) 秋享奉行

2017년 10월 30일(음력 9월 11일)



	閻門祇侯公	配位
▶ 初獻	현근(玄根)	
▶ 亞獻	재룡(載龍)	언촌(彦村)
▶ 終獻	상열(相烈)	철유(哲裕)
▶ 大祝	상직(相直)	
▶ 執禮	언태(彦泰) 충무이사	

二世祖 奉翊大夫公(諱 晟) 秋享奉行

2017년 11월 13일(음력 9월 25일)



	奉翊公
▶ 初獻	재택(在澤)
▶ 亞獻	상민(相珉)
▶ 終獻	동섭(東燮)
▶ 大祝	홍섭(洪燮)
▶ 執禮	언태(彦泰) 충무이사

三世祖 靑華府院君(諱 龍) 秋享奉行

2017년 11월 01일(음력 9월 13일)



	靑華府院君
▶ 初獻	무섭(茂燮)
▶ 亞獻	웅택(雄澤)
▶ 終獻	광보(光輔)
▶ 大祝	홍섭(洪燮)
▶ 執禮	언태(彦泰) 충무이사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秋享奉行

2017년 11월 01일(음력 9월 13일)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 初獻	재구(載求)
▶ 亞獻	상열(相烈)
▶ 終獻	인보(仁輔)
▶ 大祝	홍섭(洪燮)
▶ 執禮	언태(彦泰) 충무이사

四世祖 靑城伯(諱 德符) 秋享奉行

2017년 11월 03일(음력 9월 15일)



	靑城伯	配位
▶ 初獻	민섭(敏燮)	
▶ 亞獻	찬구(贊求)	상직(相直)
▶ 終獻	영섭(榮燮)	상용(相溶)
▶ 大祝	홍섭(洪燮)	
▶ 執禮	언태(彦泰) 충무이사	

靑城伯配位淸州宋氏 秋享奉行

2017년 11월 05일(음력 9월 17일)



	靑城伯配位
▶ 初獻	재호(載鎬)
▶ 亞獻	세택(世澤)
▶ 終獻	기섭(技燮)
▶ 大祝	상호(相昊)
▶ 執禮	언태(彦泰) 충무이사

小宗會 主管 秋享祀

五世祖 都摠制公(諱 仁鳳) 秋享奉行

2017년 11월 05일(음 9월 17일)



	都摠制公
▶ 初獻	상일(相一)
▶ 亞獻	상록(相錄)
▶ 終獻	영일(寧一)
▶ 大祝	철유(哲裕)
▶ 執禮	상호(相昊)

五世祖 仁壽府尹公(諱 澄) 秋享奉行

2017년 11월 05일(음력 9월 17일)



	仁壽府尹
▶ 初獻	찬구(贊求)
▶ 亞獻	영구(英求)
▶ 終獻	상직(相直)
▶ 大祝	우경(愚慶)
▶ 執禮	재구(載求)

五世祖 靑原君(諱 淙) 秋享奉行

2017년 11월 25일(음력 10월 08일)



	靑原君
▶ 初獻	이재춘
▶ 亞獻	심봉섭
▶ 終獻	이종철
▶ 大祝	이재정
▶ 執禮	이재장

六世祖 良惠公(諱 石雋) 秋享奉行

2017년 11월 08일(음력 9월 20일)



	良惠公	配位
▶ 初獻	정구(鼎求)	찬구(贊求)
▶ 亞獻	상열(相烈)	훈보(勳輔)
▶ 終獻	종석(鍾奭)	기성(基成)
▶ 大祝	홍섭(洪燮)	홍섭(洪燮)
▶ 執禮	재구(載求)	재구(載求)

2017年 丁酉年 秋享祭 獻誠金 接受 內譯

구 분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구 분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始祖	도총제공종회	2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三世祖 靑華府院君	도총제공종회	1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안효공파종회	1,000,000	전주 청송회	100,000		안효공파종회	300,000	대전·세종·충남종회	100,000
	대구종회	200,000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200,000		計		800,000	
	심대평 고문	300,000	심만호	50,000		악은종회	200,000	도총제공종회	100,000
	計		2,35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안효공파종회	300,000
二世祖 閻門祇侯公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파종회	300,000	四世祖 靑城伯	부사공종회	200,000	내금위종회	200,000
	計		400,000			무숙공파종친회	300,000	신천공파춘천대선종회	200,000
二世祖 奉翊大 夫公	심상환	50,000	심석열	200,000		춘천종회	100,000	도사공파종회	100,000
	심완용	100,000	심유택	100,000		計		2,000,000	
	計		450,000			도총제공종회	200,000	안효공파종회	300,000
					四世祖配位 貞敬夫人	計		500,000	

4세조 청성재(靑城齋) 준공 기념식 참석 소고(小考)



심 성 기 (沈成起)

이학박사
대종회이사
총보편집위원

청송 심문(靑松 沈門)은 훌륭한 인품(人品)과 선행(善行)이 700년 이상 쌓인 가문(家門)이다. 그 만큼 우리 가문은 선근(善根)이 깊게 내린 가문이다. 무엇을 해도亨通(亨通)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상님들의 음덕(蔭德)이 진하게 배어 있는 가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송 심문(靑松 沈門)은 아름다운 가문(家門)이다.

4세조 심덕부 정안공(1328~1401)께서 돌아가신 후로 616년 만에 그 후손들에 의해 재각이 지어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하다. 먼저 묘전에서 청성백(靑城伯) 할아버님께 참배를 올렸다.

발걸음은 곧 재각으로 향했으며, 내가 본 재각은 정말 웅장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 특히 재실 안 앞 벽에 걸린 청성백(靑城伯) 할아버님의 영정 사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 영정 사진은 <장수군도>라고 하는 그림에 계신 덕부(德符) 할아버님의 모습을 따로 뽑아서 제작한 사진이다.

<장수군도>는 위화도회군 당시 이성계, 이지란 장군과 함께 서 계신 덕부(德符) 할아버님을 포함한 세 분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그림 소장자의 말에 의하면 “장쩌민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을 때, 베이징에서 현지 고위층에게 선물 받은 것이다. 어려운 부탁을 들어줬더니 원나라 때 용문매병과 함께 이 장수군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그림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자신이 평양에 파견했던 고위직원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장수군도>는 2015년 12월 18일에 세상에 처음 소개되었다. 재각 건립을 처음 추진하기 시작했던 2014년 11월 1일 이후 재각 건립 진행 중에 <장수군도>를 만나게 된 것 또한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고, 하늘의 도우심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장수군도> 속의 덕부(德符) 할아버님은 재각 안 영정 사진으로 모셔진 것이다.

그림 속의 덕부(德符) 할아버님은 장수로서 위풍당당한 모습이셨으며, 할아버님의 오른 손에는 북채를 들고 계시고, 하늘 용(龍)과 호랑이(虎)가 할아버님을 호위(護衛)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엄이 있으신 모습이셨다. 4세조 청성백 할아버님은 문무(文武)를 겸비(兼備)하셨고, 장수(將帥)와 정승(政丞)의 모본(模本)이 되시는 할아버님이다.

4세조 할아버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4세조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 할아버지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도 상서(祥瑞)로운 조짐이 있었던 것을 전해 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덕부(德符) 할아버님의 출생 당시 분만되니 이상한 향기(香氣)가 집안에 가득하고 며칠 동안 견히지 않았다고 한다. 분만 전날 밤에 한 노승(老僧)이 문전에 와서 하는 말

씀이 천문지리를 살펴보니 천하복인이 이택에 생긴 고로 그 기운을 보고 왔다 하며 조금 후에 공의 응애 하는 울음소리를 듣고는 과연 그 사람이라 했으며, 세 살 때에 중병에 걸렸는데, 그 스님이 또 하늘이 이 사람을 낳았으니 필연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더니 과연 회복 되었다고 한다.

재각의 이름은 “청성재(靑城齋)”라 한다. 이름의 의미(意味)는 덕부(德符) 할아버님께서 고려조 문하시중(門下侍中)이셨을 때 청성백(靑城伯)에 봉작된 데 기인한다(1389년 12월, 1391년 2월). 이후 조선조에 와서는 1392년(태조1년), 1399년(정종1년)에 청성백(靑城伯)에 봉작된다.

재각 준공 기념식은 약 750여 명의 일가들이 참석하였다.

재실 안에서 제향을 올린 후 재실 앞마당에서 재각 준공 행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언대 대종회 총무이사님의 개회 선언이 있었고, 다음으로 상월 대종회 감사님의 재각 신축 경과보고가 있었다.

2014년 11월 1일, <청성백 재각 건립 추진 위원회>가 발족이 된 이후 2017년 11월 3일 재각건립 준공식을 맞이하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들을 수 있었다. 3년 만에 뜻 깊은 준공식을 갖게 되는 가슴 뭉클한 내용이었다.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재실건축에 공헌하신 분들께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고, 이어서 재실 본채 앞 테이프 컷팅식이 진행되었다. 재각 준공 고시는 종순(도총제공)이신 민섭 대종회 부회장님의 헌작(獻爵)이 있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에는 시제 당일 눈비가 오게 되면 마을 회관을 빌려서 시제를 드렸던 지난날의 불편함과 아픔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편 없이 재실에서 시제(時祭)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후손으로서 더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실로 감개무량하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전국에 계신 일가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세조 청성백(靑城伯) 할아버님은 세종대 왕비(世宗大王妃) 소헌 왕후(昭憲王后)(1395~1446)의 할아버님이 되시며, 약 623년 전에 경복궁(景福宮)과 종묘(宗廟)를 만드시고 수도 한양을 설계하신 분이 청성백

(靑城伯) 덕부(德符)선조님이시다. 정안공께서는 여러 아드님들이 벼슬을 받게 될 때면 번번이 얼어 터져서 험하게 된 손발을 보이시면서 “나는 나가나 들어오나 부지런히 일했어도 겨우 이렇게 지내는데 너희들이 어찌 편안히 앉아서 벼슬을 받는단 말이나!” 라고 훈계하셨다고 함에서 알 수 있듯이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이신 것은 후손들이 널리 귀감을 삼아야 할 것으로 안다.

우리 청송 심문(靑松 沈門)도 문림랑공(文林郎公) 할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700여년을 이어오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후손으로 아름답게 이어져야 한다. 이어진 후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후손으로 역시 아름답게 이어져야 한다.

이제는 청송심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재각준공 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전국일가들의 단합된 힘으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생겼다. 삼한갑족(三韓甲族) 명문가문(名門家門)의 집안으로서靑松沈門은 이제 수준 높게 생각하며 뻗어나가야 한다.

한편 전국의 일가 분들이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중의 하나가 대종회의 정기총회라고 생각한다. 대종회의 정기 총회는 1년 365일 중에서 우리靑松沈門의 잔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일가들이 모여서 이날만큼은 가문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종인들 중에 가문을 빛낸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아픔을 당한 종인들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정기총회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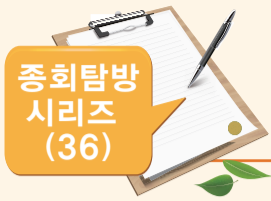
또한 총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靑松沈門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4세조 재각준공은 이러한 과정에서 돌출이 된 것이다.

다음은 내가 청성백(靑城伯)할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이다.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재각을 늦게 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재실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소서...

할아버님께 드린 정성보다 받은 사랑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청송심문을 사랑하고 빛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공파곡성종회 탐방(都正公派谷城宗會 探訪)



심 상 온 (相溫)
도정공파 곡성종회 회장

都正公派谷城宗會를 탐방하기 위하여 아침 6시반에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도정공파곡성종회에서 31분의 先祖秋享을 奉行하는 날이기도 하다. 전주에서 환승하여 순창행 직행버스를 탔다. 이윽고 순창에 내리니 10시다. 터미널에서 재석 총무님과 前 정식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10여분 달리니 범상치 않은 우뚝한 장패봉(將牌峰)이 보인다. 將牌峰에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산기슭에 세운 영사재(永思齋)에 도착하니 11시다. 반갑게 맞이해 준 일가어른들과 함께 8세 해주목사 휘:안지(諱:安智) 할아버지와 8세 정부인 경주 김씨를 비롯한 20분의 享祀를 마치니 어느새 정오가 되었다. 永思齋에서 飲福과 齋食을 하고나니 내리던 진눈개비도 멈췄다. 다시 자가용으로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가리 옥출산 백호재(白湖齋)에 도착하니 오후 1시다. 입향조(入鄕祖) 어모 장군 都正公 휘:순(諱:淳)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섬진강이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쪽 서출동류(西出東流)으로 흐른다는 천하의 길지이다.

입향조(入鄕祖)를 비롯 9세 祖妣 숙부인 하동 정씨를 비롯하여 11분의 조상님께 합동분향(合同焚香)하고 享祀를 지냈다. 유교적 식견이나 예의범절이 투철한 이곳 곡성에서 축문을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읽는 것을 보고 시대에 발맞춰나가는 진취적 자세에 공명(共鳴)이 되었다.

■ 종회의 구성원(構成員)

都正公派 谷城宗會의 구성원은 2000년 경진 대동세보에 수록된 세대수가 1,255 세대이며 종원은 4,016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회는 고문 鎮植, 愚慶, 正植, 永澤, 相祐, 判求, 載現, 宗植과 명예회장 駿變, 회장 相溫, 부회장 鍾植, 淵植, 載萬, 大永, 在植, 明燮 지도위원 愚仁 외 14인, 감사 永求, 喜權, 총무 載錫, 이사 奉植 외 37인 간사 載述, 起榮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립동기와 목적

본 종회는 忠孝思想에 입각한 靑松沈門 先祖들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고 相互協助하여 후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崇祖敦睦(崇祖敦睦)의 정신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함이다.

■ 종회연혁

본 종회는 1977년 11월 제 1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회회칙을 제정하고 초대회장으로 均澤 종인을 선임한 이래 現在는 40대 相溫 회장이 종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전라도 유림들의 발의로 창건된 구암사(龜巖祠)와 영사재, 백호재(永思齋, 白湖齋) 그리고 묘역(墓域) 및 함허정(涵虛亭)과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 現 제호정 고택을 중수(重修)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선조들의 제향(祭享)에 힘쓰고 있다.

■ 도정공 휘:순의 입향 내역(都正公(諱:淳)의 入鄕 來歷)

9世祖 都正公(諱:淳)은 남원부사와 해주목

사를 역임한 휘:안지(諱:安智)와 慶州 金氏 찬송공 종직(從直)의 따님 사이에서 1464년 6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都正公께서는 일찍이 모친을 여인 까닭으로 부친의 任地인 해주로 따라가지 못하고 남원군 송동면 두동리 외가에서 자랐다.

註 1. 가계도(家系圖)

5세 인수부윤공(諱:澄) -6세 양혜공(諱:雋) -7세 망세정(諱:璿) -8세 牧使公(諱:安智) -9세 都正公(諱:淳)公께서는 천품(天稟)이 고매하고 총명하여 10세에 이미 人倫의 道를 깨달았으며 言行一致의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아버지 해주목사께서 임지에서 별세하시니 황해도 해주로 가서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의 禮를 지켰으며 그 슬퍼함이 하늘에 닿았다고 한다.

관직(官職)에 나아가서는 용양위부사직의 소임(所任)을 다한 공로로 통정대부 돈령부 도정(정3품)으로 임명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土禍)의 폐해(弊害)를 보고 홀연히 벼슬을 그만두고 곡성군 입면 송정리 상촌에 정착하면서(현 순창군 풍산면 향가리) 옥출산 기슭에서 詩書를 즐기고 두문자정(杜門自靖)하며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공께서 이곳에 정착한 이래 전남 곡성군 입면, 결면, 옥과면에 청송심씨 도정공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註2 : 杜門自靖-문밖에 나가지 않으니 스스로 편안하다.

■ 종회자랑

1)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이 건물은 10世祖 심광형 선생이 1535년 곡성군 입면 제월리 군촌에 창건하여 강학의 장으로 정하고 당호를 “군지촌정사”라 하였으며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 등 대표적인 한옥 古건축양식 원형 그대로 480여 년을 보존하여 왔다.

2) 함허정(涵虛亭)-(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160호)

중학훈도를 지낸 바 있는 당대의 문사 10세 조 제호정 심광형 선생이 만년에 학문을 닦고 영호남(嶺湖南) 유림들과 교류하며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1543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30m 절벽 아래로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주위에는 수령 500여 년을 자랑하는 노거수가 울창하다. 호남 8대 정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사현실기 발간(四賢實記 發刊)

四先生 망세, 제호, 두암, 구암(忘世亭 霽湖亭 杜巖公 龜巖公)의 漢字로 된 實記를 2014년 12월 우리글로 번역하여 뒷날 우리 후세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수(傳受)하기 위하여 233쪽의 고급화질로 발간하였다.

4) 門中을 빛낸 人物

* 10세 제호정 휘:광형(10世 霽湖亭 諱:光亨) 입향조 휘:순(入鄕祖 諱:淳)의 次男이며 효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고 경사(經史)에 통달(通達)하고 호,영간(湖嶺間)의 많은 선비와 교류하였다. 당시 도백(道伯)이 出仕할 것을 권하였으나, 불응(不應) 함허정(涵虛亭)을 짓고 중학훈도에 매진(中學訓導에 邁進)했다.

* 12세 두암 휘:민겸(12世 杜菴 諱:敏謙)

入鄕祖 諱:淳의 曾孫이며 선조 25년 입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元首 권율과 함께 싸웠으며, 갑자호란 정묘호란 때에도 의병과 의곡(義穀)을 모집하는 등 국란 때 마다 부의(赴義)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 13세 구암 휘:민각(13世 龜巖 諱:民覺)

入鄕祖 諱:淳의 高孫이며 문장과 무술을 겸비(兼備)하고 풍채(風采)가 영매(英邁)하였다. 인조2년(1624) 갑자관란(甲子逆亂)에 의병과 가동(家僮) 900여 명을 이끌고 창기(倡起)하여 전공을 세웠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호서지방을 지키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 근대 인물로는 故 亨澤(號 松軒) 전 전남 경찰청장 등 官界와 學界의 교수 학장 등 수많은 인재가 현직(現職)에 있으며 문중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 종회의 앞으로의 계획

곡성군 입면 제월리 군촌 소재 구암사(龜巖祠) 강당건물이 단층 벽돌집으로 오랜 세월 풍상(風霜)에 낡은 상태다. 조속히 한옥으로 개축하여 祠宇 文化財로 등재되기를 간망(懇望)하고 있다.

■ 종인들에게 바람

崇祖敦睦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사랑하고 협조하여 숭모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데 진력하자

■ 대종회에 바람

전라남도 유림들에 의해 창건된 龜巖祠는 나라에 충성한 네 분 顯祖님을 지역유림에서 추앙하고 있는 곳이다. 청송심씨 유적지인 유림향사에 대종회 차원에서 관심과 협찬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

■ 맺는 말

오후 4시 30분 탐방을 마치고 종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의 배웅을 받으면서 곡성역에서 오후 5시 새마을 열차에 올랐다. 많이 보고 많이 경탄하면서 都正公派谷城宗會는 더 많은 발돋움과 발전이 기대되는 종회라는 것을 느꼈다.

지면관계로 게재원고를 거두절미(去頭截尾)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못내 아쉽다.

글·대담 : 수영 편집위원
참 석 자 : 갑택 문화이사



함허정 앞에서



구암사 앞 집행부와 함께

2017년도 청송도호부사 순력행차 재현

2017년 10월 19일 청송군청 주관 '청송도호부사 순력행차' 행사가 심문의 분향인 청송에서 개최되어 우리 심문은 더욱 빛났다.



우리 심문은 조선시대 제16대 청송도호부사인 8세조 돈녕정공(諱: 順道) 선조님이 계시다. 후손인 관공 상렬 회장, 근섭, 경섭 등 많은 일가가 참석하여 청송심문을 알리는데 많은 수고를 하였다.

청심회 시조묘소 참배

청심회는 청송심문의 일가들로 국회의원, 사업가, 교수 등 정계와 재계, 학계에서 일조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다.



지난 11월 18일 상돈 회장님을 비롯한 재철 국회부의장님 등 회원 24명은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청송심문을 더욱 빛내어 심문의 가치를 높이자고 다짐 하였다.

靑松沈氏 전국 모임

- 모임목적: 전국 청송심씨 후손들이 SNS를 통해 소통과 화합 심문의 뿌리와 선조님들의 업적을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

- 주소 : <http://band.us/csshim>



榮轉을 祝賀드립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2017. 5월 발령
안효공후손 12세 좌승지공(諱:淑) 14세손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2017. 6월 발령
안효공후손 11세 검정공(諱:友言) 13세손

심승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2017. 9. 26 발령
안효공 12세 좌승지공(諱:淑) 12세손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 301-0107-5873-71

강원감영 五百年 역대 강원도 관찰사

조선시대는 전국을 8도(道)의 지방행정구역으로 구획하였으며, 그 아래로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어 지방의 통치행정을 이끌었다.

지방의 통치담당 외관(外官)은 수령(守令)이었고, 수령의 치적 여하는 국가의 성쇠(盛衰)와 왕정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수령에 대한 감독과 지휘를 총괄하면서 도내의 민정(民政) 사법(司法) 등의 전권을 행사하는 지방최고의 행정장관이 관찰사(觀察使)였던 것이다.(종2품 이상)

매년 강원감영문화재 관찰사 순력행사에 우리 청송심씨후손들이 참석하고 있다.

관찰사를 지내신 8분은 아래와 같다.

심액(沈液)1637(좌승지-강원관찰사), 심평(沈樺)1696(동부승지-강원관찰사), 심택현(沈宅

賢)1715(광주부윤-강원관찰사), 심성희(沈聖希)1737(司直-강원관찰사), 심성진(沈聖鎭)1749(이조참의-강원관찰사), 심수(沈鑄)1757(안변부사-강원관찰사), 심진현(沈晉賢)1793(병조참관-강원관찰사), 심상훈(沈相薰)1906(표훈원총재-강원관찰사)



진포대첩(鎭浦大捷)을 승리로 이끈 심덕부(沈德符)장군

기념동상건립부지 사용승락 검토요청 공문접수

<진포대첩 심덕부 장군 전승기념동상 건립위원회>는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끈 심덕부 장군의 민본주의 사상과 애국애족 사상을 널리 세상에 알리고 후대에까지 계승시키고자 심덕부 장군 전승기념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진포대첩은 1380년에 일본의 왜구 27,000명이 500척의 군선으로 군산 앞 바다인 진포에 쳐들어 왔을 때 16세의 우왕과 최영이 심덕부를 서해도 원수를 임명하고, 나세를 상원수로 최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왜구를 무찌르라 명령했던 전투이다. 이때 심덕부 장군께서는 93척의 군선과 5000여명의 병사로써 왜구를 물리친 해전이다.

따라서 <진포대첩 심덕부 장군 전승기념동상 건립위원회>는 심덕부 장군 기념동상건립부지 사용에 대한 승락 협조요청 공문을 군산시에 접수하였다.

‘17. 9월 : 사단법인 진포대첩건립위원회 설립

심덕부 장군 전승기념동상 위치 : 군산시 장미동49-45번지 일원
전체면적 중 660㎡ 토지사용요청

추후일정

- 심덕부 장군 동상 건립 : '17. 12월 ~ '18. 12월
- 효녀심청의 효녀효부상 건립 : '19. 3월
- 유품전시관 설치 : '19. 3월

검토결과

- 시 부지 제공 및 건립위원회 동상 및 건축 관련제반 시설비 투자 시 추진가능
- 동상 및 기타 건축물이 바다를 향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
- 토지사용 승락 관련유관 부처 협의 : '17. 11월중
- 사업부지 관련 위치선정은 추후 협의



심덕부 장군 전승기념동상 건립부지 위치도

청성백 재실 부속 건축물



① 단청작업 중인 비각 모습.

② 마무리 공사 중인 재각 관리사

공지사항

- 1) 임원회비(이사회비 5만원, 감사회비 20만원, 부회장회비 30만원, 회장회비 300만원) 미납 임원께서는 12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중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종보찬조 지료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 신청 바랍니다.
- 5) 연천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기념식수를 희망하시는 종회(종인)는 연태 총무이사에 신청바랍니다
- 6)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11권)에 6만원에 보급 합니다.